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Y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9



2026년 골든 클럽 첫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일시: 2026년 4월 23일

장소: Sunset Golf Course (라운딩) / Flaming Grill

참석 인원: 27명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골든 클럽 골프대회가 지난 4월 23일 썬셋 골프 코스(Sunset Golf Course)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쌀쌀하지만 골프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상쾌했던 아침, 오랜만의 모임을 앞둔 회원님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회원은 심한 감기 등 건강상의 이유로 아쉽게도 불참하여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11번 홀의 깜짝 손님

이번 라운딩 중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11번 홀에 곰이 등장하여 순간 당황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성체가 아닌 어린 개체였으며 사람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온순한 성격이라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회원분들에게 잊지 못할 귀엽고 이색적

인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시상식 및 따뜻한 축하의 시간

라운딩을 마친 후, 회원들은 골프장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플래밍 그릴(Flaming Grill)로 자리를 옮겨 만찬과 함께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축복 가득한 순간: 이번 모임에서는 골든 클럽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고(故) 사모님을 대신하여 새롭게 배필을 맞이하신 이강홍 회원님 부부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축복을 전하는 뜻깊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유쾌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OLDEN CLUB NEWSLETTER

발행: 서울대 뉴욕지역 골든클럽 • 회장: 김정필 • 부회장 이영범, 금영천 • 김병순 (사무총장)
편집위원: 금영천, 김병순, 김정필, 여주영, 이영범, 육재희, [상임고문]정해민, 홍종만, 윤현남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 jaypkim@keiusa.com • 201-965-7759

서울대 뉴욕지역 총동창회 춘계 친선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뉴욕동창회에서 동창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한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하니 골든클럽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 하셔서 젊은 동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같이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날짜: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Pelham Bay & Split Rock Golf Course
870 Shore Road, Bronx, NY 10464
회비: \$120 (green fee / cart / dinner 포함)
참가신청: 김병순 (703-407-4928) / 단톡방



4월 골프대회 결산보고

첫번째 시험이라 아직 몸들이 풀리지 않아서 성적이 평소보다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이름	성적	등수
계동휘	+2	1등
최준희	+2	2등
박기환	+3	2등
임도혁	+3	3등
김병순	+3	3등
홍예경	+3	3등

수입

참가비 \$120 x 27 \$3,240
후원금 (정해민) \$ 500

지출

그린피 \$2,538
디너 \$ 686
음료 \$ 112
점심 \$ 212
상금 \$ 360

잔액

(-) 168

골든라이프 세미나: AI 시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라이프

■ [특별 세미나] 인공지능(AI), 이제 우리의 든든한 단짝입니다!

골든클럽 동문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AI(인공지능)'**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이번 5월, 우리 동문이자 전문가인 **양경호 박사(공대 83)**를 초청하여 시니어의 눈높이에 딱 맞는 '쉬운 AI 활용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비서를 두는 비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세미나 안내] AI 시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라이프
일시: 2026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Hilton Garden Inn, Ridgefield Park, NJ
강사: 양경호 박사 (공대 83학번)

주제: "복잡한 기술은 몰라도 됩니다! 말로 하는 AI 비서 활용법"

💡 미리 보는 AI 활용 꿀팁: "검색 대신 대화하세요!"
세미나에 오시기 전, 스마트폰에 '제미니(Gemini)' 앱을 설치해

보세요. 구글 검색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검색과의 차이: 수많은 광고 글 사이에서 정보를 찾는 대신, AI는 내 질문에 요점만 정리해 직접 대답해 줍니다.

말 한마디로 해결: 글자를 치기 힘들 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씀만 하세요.

"자식들에게 보낼 다정한 안부 문자 좀 써줘"

"이 약 봉투 사진 찍었는데, 주의사항이 뭐니?"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저녁 메뉴 추천해줘"

"AI는 공부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절대 짜증 내지 않는 친절함 말동무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손주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2회 Master Class 이길주 교수

지난 4월 2일, Bergen 커뮤니티 칼리지(BCC)에서 개최된 이길주 교수님의 초청 강연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번 강연은 ‘베트남 전쟁의 역사와 현재 중동 정세의 평행이론’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길주 교수님은 미국이 이란을 향해 가하는 공습과 압박이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의 전략과 매우 흡사하며, 이는 ‘파괴를 통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지나친 확신에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님은 베트남 전쟁의 비극적 역사를 통해, 명확한 목표(Aim) 없이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전쟁은 결국 ‘진흙탕(Quagmire)’ 같은



수령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이 베트남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간과한 채, 단순히 경제적 원조나 물질적 풍요를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독선적인 태도였음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리집 체인지만을 요구하며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상대의 저항 의지만 더욱 결집시킬 뿐이라는 통찰을 전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BCC 안미나 학장님이 참석하여, 향후 지역 사회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역사학,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심리학 등 다양한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문턱을 낮추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교육적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강연후기: 이길주 교수님

이번 강연은 역사적 사실을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 대입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추후 진행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골든 클럽 회원님들께서 Bergen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오셔서 제 보잘것없는 강의를 들어주셨습니다. 내용도 빈약했지만, 회원님들과 빨리 가까워지려는 조급함에 결례가 되는 말과 표현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말과 생각보다는 반가움이 앞선 강의자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전하려는 욕심 또한 강의를 두서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제 강의가 끝나고 안미나 교수, 최경희 교수께서 제게 멀리 스테이튼 아일랜드, 또 퀸스에서까지 오셨다고 귀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나, 또 Bergen 커뮤니티 칼리지의 다른 교수님들이 골든 클럽을 위해 강의자로 나서주실 의향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Bergen 커뮤니티 칼리지에 자주 오시면 기쁘겠습니다.

다.

참, 어제 제 발언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과도한 재정 지출을 했고, 따라서 달러 통화량이 늘어나고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금으로 달러 가치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본(金本) 정책을 중단하고 은본(銀本)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실수였습니다. 은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오늘의 일반 종이화폐 정책으로 갔습니다. 달러 값이 자유롭게 시장의 판단에 따라 오르고 내리게 된 것입니다. 실수 바로 잡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길주 드림



아마존을 넘어서다 Beyond Amazon

손대홍 (미대79) 공저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아마존(Amazon)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왔다. 소매업계에서는 한 때 ‘아마존드(Amazoned)’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오프라인 매장들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경쟁업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이다.

월드와이드웹(WWW) 이전인 1979년 마이클 올드리치가 전자쇼핑을 발명했고, 이어 1982년 보스턴 컴퓨터 거래소(Boston Computer Exchange, BCE)가 중고 컴퓨터를 사고파는 BBS(전자게시판) 기반의 온라인 시장을 연 이후, 1995년 아마존과 ebay가 등장하며 이커머스는 온라인 소매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소매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오프라인 시대를 대표했던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게 되면서, 세계 최대의 오프라인 소매기업이자 오프라인 유통업의 공룡이라 불리었던 월마트(Walmart)의 몰락을 점치는 업계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2010년 당시에도 월마트는 미국 내에만 4,000 여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었고, 뒤늦게 온라인 소매를 시작하였지만 워낙 거대한 오프라인 소매업체였기에 오프라인 사업을 등한시킬 수도 없어 아마존과 이베이를 따라가기가 벅찼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2016년, 고등학생 시절부터 여름방학이면 월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대학 졸업 후 바로 월마트에 입사하여 근무해온 뼈속까지 월마트인이었던 당시 49세의 더그 맥밀런(Doug McMillon)이 CEO의 자리에 오르며 월마트의 변화는 시작된다. 바로 ‘월마트의 디지털화’라는 목표 아래 디지털 혁신으로 월마트의 DNA를 바꾸기 시작한 것인데, 월마트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

자신들의 부족한 역량을 단기간에 높이는 방법으로 역량을 가진 기업체를 인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로서 상당한 금액이었던 33억 달러로 아마존의 가장 큰 경쟁자로 불리던 스타트업 기업 젯닷컴(jet.com)을 인수한다. 단순히 기업을 인수한 것에 더하여 젯닷컴의 CEO였던 마크 로어(Marc Lore)까지 영입하며 월마트의 이커머스 사업을 이끌도록 했던 것이다. 이후 2018년에는 인도(India)의 아마존으로 불리던 플립카트(Flipkart)를 인수하며 이커머스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는데, 플립카트는 지금도 인도에 아마존을 앞서며 인도의 온라인 소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후, 월마트는 지속적으로 이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오프라인 기업을 포함 10개 이상의 기업인수를 단행한다. 목표는 오직 하나, 디지털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월마트는 이커머스를 위한 소매기술도 확보하게 되는데, 바로 증강현실의 기술이었다.



가구와 홈데코 제품을 자신의 공간에 배치해보거나, 의류,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고, 자신의 얼굴에 가상으로 화장을 체험해볼 수도 있는 기술들을 도입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Everyday Low Price’라는 슬로건으로 단순히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월마트가 아닌, 고객경험을 위한 서비스에서 앞서가는 월마트가 된 것이다. 월마트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머커스 사업에서도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는 2026년 1월 기준 4,611개의 월마트 점포가 있으며, 샘스클럽(Sam’s Club)을 더하면 5,2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를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인의 90% 이상이 월마트 반경 10마일 이내에 거주한다. 월마트는 이점을 이용해서, 전체 점포를 온라인 주문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는 거점으로 점포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마존이 거대한 물류센터로부터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라면, 월마트는 5,200 여개의 점포로부터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다.

아마도 경험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월마트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과 생필품을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배송해주시기도 하며,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내면 아무도 없는 빈집의 차고나 부엌의 냉장, 냉동고에 까지 상품을 배달하여 넣어준다. 물론 집 안으로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배달원은 바디캠을 착용하여 주문한 고객들이 배달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뉴스를 통하여 당연히 아마존이 매출에서 앞선다고 알고 있지만, 단순 소매업을 기준으로 하면 월마트가 아마존에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말 기준, 월마트의 미국 내 매출은 \$4,620억 달러이며, 아마존의 미국 내 소매 부문 매출은 \$3,496억 달러로 월마트가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선식품 온라인 소매매출에 있어서는 월마트가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

아마존도 점포배송 확대를 위하여 아마존 프레쉬(amazon fresh)라는 오프라인 점포를 2020년 8월을 시작으로 미국 내에 60여개까지 확장을 했었지만 2026년 초 모든 점포를 폐점하는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물론 아마존이 보유한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의 550여개 점포는 그대로 유지되며, 아마존은 이를 통하여 식품배송사업을 강화하는 하면 미국 내 전역 1,000여개의 도시에 근거리 소형 물류센터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월마트의 점포 배송에 대항하는 전략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월마트가 이민자와 값싼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매업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의 월마트는 그런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월마트는 미국 소매업체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앞세운 소매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말, 월마트는 53년만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떠나 나스닥(NASDAQ)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는 월마트가 더 이상 전통적 소매기업이 아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테크 기업'임을 선언한 셈이다. 월마트는 직원들이 AI를 통하여 최적화된 구매와 물류, 판매를 통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회사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변화하고 있다. 월마트는 기업과 직원과 고객을 위한 기술 모두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을 넘어서다(Beyond Amazon)'은 오프라인의 황제인 월마트가 10여년에 걸쳐 온라인의 강자로 변신해온 AX와 DX 전략과 과정을 소개한 책입니다.

참고로 월마트의 배송 서비스는,

- 월마트 플러스(+) Walmart+
 - 지역 매장에서 상품을 가져와 배송하는 서비스로, 배송료는 보통 7.95달러에서 9.95달러로, 월마트 플러스 회원은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음.
- 가정 배달 서비스 InHome Delivery
 - 숙련된 직원이 식료품을 주문자의 집, 주방, 차고 등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을 해주며 냉장·냉동고에 진열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이다. 배달 직원은 바디캠을 달고 고객의 배달의 과정을 볼 수도 있음.
- 특급 배송 Express Delivery
 - 2시간 이내 배송을 보장하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선식품의 배송에 주로 이용됨.
- 매장 픽업 서비스
 - 앱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픽업이 가능한 시간이 앱으로 통지되고,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Curbside Pickup으로 상품을 받을 수도 있고, 매장 입구의 픽업센터에서 받아들 수도 있음.
- 당일 배송
 - 사전에 주문을 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며 표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음.
- 구독료:
 - 월마트+ 멤버십은 연간 98달러 또는 월회비 12.95달러가 부과됨. 아마존 프라임 연회비 139달러, 월회비 14.99달러와 비교해 약간 저렴.
- 최소 주문 금액
 - 무료 배송을 위해서는 최소 35달러 이상 주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6.99달러의 배송비가 부과됨.
- 배송 가능 지역
 - 현재 100개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3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제한 사항
 - 50파운드(약 23kg) 이상 또는 특정 위험 물질은 자택 배송이 불가능할 수 있음.



대공황과 전쟁의 파도를 넘은 지도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1882-1945)



Franklin D. Roosevelt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자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FDR)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재임하며 격동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남긴 리더십의 자취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 통찰을 되짚어 봅니다.

1. 시련을 넘어선 공감의 리더십

FDR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배출한 뉴욕 하이드파크의 명문가 출신으로, 하버드대와 컬럼비아 로스쿨을 거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1921년, 갑작스러운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신체적 제약은 그에게 약자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했으며, 이 경험은 훗날 그가 권위적인 통치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듬는 '공감의 개혁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시대적 배경: 붕괴 직전의 민주주의를 구하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대기업의 비대화, 극심한 소득 불균형, 금융 투기가 낳은 거대한 파국이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은행 붕괴가 10년간 이어지며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던 절체절명의 순간, FDR은 기존의 '작은 정부' 논리를 넘어선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선언하며 위기의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3. 뉴딜 정책(New Deal):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다

FDR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이라는 3대 원칙하에 전례 없는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금융 안정과 서민 보호: 즉각적인 은행 휴업령을 내려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서민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융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CCC(민간보존단): 18~25세 실업 청년들을 고용하여 산림 조성, 국립공원 개발, 토양 침식 방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국립공원과 트레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WPA(공공산업진흥국): 도로, 교량,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식인과 예술가를 고용하여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복지 국가의 초석: 사회보장제도를 제정하여 연금과 실업보험을 도입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해 금융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대공황이 오지 않게 구조를 짰습니다.

4. 대중과의 소통, '노변담화(Fireside Chats)'

FDR은 언론과 정적들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라디오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약 30회 이어진 '노변담화'는 화롯가에 앉아 이야기하듯 편안한 대화체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은행 위기 당시, 그는 국민에게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멀리 있는 엘리트가 아닌, 자신의 집 화롯가에 함께 앉아 솔직하게 고민을 나누는 ‘보호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역사적인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5. 제2차 세계대전의 지도력과 세계의 리더로

전쟁 전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물자를 지원하며 산업력을 전쟁 체제로 전환했고, 진주만 공습 이후에는 영국, 소련과 연합하여 연합국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후에는 국제연합(UN) 창설을 주도하며 미국을 실질적인 ‘세계 지도국(Superpower)’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6. 반대와 극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교훈

강력한 개혁에는 거센 반발이 따랐습니다. 보수 진영과 자본가들은 “루즈벨트는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했고, 연방 대법원마저 주요 뉴딜 정책에 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FDR은 1936년 대선 압승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법원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대법원 개혁안은 삼권분립 논란 속에 폐기되었지만, 이는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헌법상 대통령 3선 제한(수정헌법 22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맺음말]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한 대통령입니다. 이번 6월, 저희 하이킹과 문화체험 행사에서 FDR 흙과 도서관, 그리고 인근의 밴더빌트 맨션을 방문해 보십시오. 자본이 쌓아 올린 ‘부의 권력’과 국민을 향한 ‘공공의 권력’이 같은 시대를 어떻게 공유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루즈벨트라는 거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는 글]

1936년 선거는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라 이후 미국 정치 질서가 “재편(realignment)”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1936년 대선에서 루즈벨트는 이 때 뉴잉글랜드 초강세 공화당 보수지역인 메인 주 (Maine) , 버몬트 주 (Vermont) 2주 제외한 46개주 승리하여 총 선거인단 531명중 523명 확보로 미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대선 승리로 기록됩니다. 이 선거로 이전까지의 미국정치를 북부 공화당, 남부 민주당 구도에서 정책 위주의 정당 이미지의 뿌리가 생기고 이후 3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미국 건국 후 정당 변천사를 한번 살펴 보면 어떨까요?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등과 함께한 테헤란 회담



Franklin D. Roosevelt 저택

회원 명단 (108명 / 2026-4-25)

강교숙	김병순	민준기	신두식	이승준	정수일	한태진 한용희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상만	박기환	신진식	이준	조달훈	
강영선	김승호	박상원	신응남	이대연	조승자	
계동휘	김영덕	박준구	오순문	이대영	정준영	
고애자	김영만	박희병	오용호	이영범	정해민	
곽선섭	김우영	배상규	오인석	이용대	조상근	
권문웅	김익성	성기로	우규환	이위곤	주상선	
권정덕	김정필	손갑수	육재희	이전구	주재양	
홍선경	김창수	손경택	윤선구	이종대	진병일	
권영대	김충정	손대홍	윤상영	이종석	천병수	
권태천	김치갑	남종현	윤재욱	이준행	천종화	
김영천	김태일	손옥화	윤종숙	이홍빈	최준희	
김광수	김한중	송근숙	윤현남	임도혁	최한용	
김광현	김현중	송용길	이강홍	임호순	최학주	
김동건	노승만	송현자	이민제	전문준	한민우	
김문경	노용면	송학린	이상무	정도현	한용오	
김문언	문선	송혜순	이상원			

골든클럽 행사 2026

2월	12일(목)	Talk show (Hilton Garden Inn) 23명 참가
3월	7일 (토)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75명 참가
4월	2일(목)	Masterclass 2강 이길주 교수
	23일(목)	골프대회 (Sunset Valley 27명참석)
5월	7일(목)	Masterclass 3강 AI 비서 만들기
	21일(목)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6월	11일(목)	피크닉 (Minnewaska State Park)
	25일(목)	골프대회 Walkill
7월	9일(목)	Masterclass 4강 유산상속
	23일(목)	골프대회 Meadows
8월	12일수)	피크닉 (Alpine Pavillion)
	20일(목)	골프대회
9월	24일(목)	골프대회
10월	15일(목)	미네와스카 단풍관광
	22일(목)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1월	5일(목)	골프대회
	1-10	일본여행
12월	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골프여행

2026년 연회비 납부 명단 66명 / \$6,600 / 2026-4-25

강에드	김익성	손대홍	이상무	전문준	홍정표
곽선섭	김정필	남종현	이상원	조달훈	(2027)
권정덕	김충정	손갑수	이승준	조승자	윤종숙
홍선경	김태일	송혜순	이영범	조상근	
계동휘	김한중	신진식	이위곤	주상선	
권영대	김현중	오순문	이종대	천병수	
김영천	박기환	오용호	이종석	최준희	
김광현	박상원	우규환	이행순	최한용	
김상만	박준구	육재희	이홍빈	문선	
김문경	박희병	윤선구	임도혁	한태진	
김문언	배상규	윤종숙	임호순	한용희	
김병순	성기로	이강홍	윤상영	홍종만	
김영덕	손경택	이대연	정해민	홍예경	

2026년 후원금 기부 명단 (25명 / \$11,300 2026-4-25)

강에드 300	김정필 300	우규환 200	최준희 300
계동휘 300	김한중 300	이강홍 500	최한용 500
김영천 300	성기로 400	이상원 200	홍종만 1000
권정덕 500	손경택 900	이종대 200	
김광현 300	신진식 500	이행순 300	
김문경 300	오순문 200	전문준 500	
김영덕 100	오용호 500	정해민 2400	

2026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5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영천 (약대72)
- 박기환 (문리58)
- 배상규 (약대61)
- 오순문 (사대68)
- 이강홍 (상대60)
- 최한용 (농대58)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과 바뀐 내용만 적어주세요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연회비 \$100
단과대	학과	입학연도	후원금(\$)
전화번호	이메일		입회비 \$200
주소			